

#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수출 '첫 걸음'

## 기원전자-인도 쓰리세이텍 엔지니어링에 100만불 첫 수출 계약 체결 성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내수에 전념해 온 도내 중소기업이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포스트카이나'로 새롭게 떠오르는 인도시장에 첫 진출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인 기원전자(주)가 27일 인도 SRI SAITECH Engineering사와 주력상품인 혼(자동차 경적)을 수출하는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100만불 규모로, 전북도와 전북경제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 해 9월 추진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 인도 바이어가 기원전자(주)의 우수한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상담이 진행됐으며, 9개월여

만에 수출성파로 이어졌다. 기원전자(주)는 익산에 소재한 기업으로 1975년 설립 이래 40여년간 내수시장에만 치중하고 해외시장은 간접 수출만 하고 있던 중, 내수시장 침체가 지속되자 지난해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사업에 참가해 거둔 첫 수출계약이라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약 당사자인, 인도 SRI SAITECH사는 기계부품 해외 유통과 유지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 전역에 자체 유지보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인도 지역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날 수출계약식에 앞서 도내

60여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카이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제2회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8개국 14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여 도내 업체의 수출가능성을 타진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세계 경기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가운데 도에서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참가, 국제특성비 지원, 바이어초청 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 행사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와 협업체권리도 홍보, 무주태권도원 방문 및

문화체험등으로 전북의 위상을 알리는데도 기여했다.

경진원은 세계태권도 대회기간동안 선수권 대회 참여 국가 170개국 중 인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인도 선수들을 응원하고 전북 문화 알리미 역할을 자처했다.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최근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 계약은 가뭄속에 단비와 같은 희망"이라며, 기원전자 같이 세계적으로 앞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진 내수기업을 발굴해 수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컨설팅, R&D, 인종, 해외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홍 기자



## 우정청-여성경제협,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전북우정청은 2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여성기업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우체국 달팽이장터·우체국소풍을 통한 여성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과 지원하고 고도 편리한 다수 기업 일괄 광고서비스인 POST PLUS+를 통해 중소기업의 홍보와 매출 증대에 공동 노력하며,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생형성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정기예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동안 여성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체국이 함께한다니 큰 힘이 된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여성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더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탄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수 청장은 "우체국에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달팽이장터와 최근 POST PLUS+등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시행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하여 여성기업 우수제품의 홍보와 광고 그리고 판로개척에 보탬이 되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인협회 박영자 회장은 "그

/인재홍 기자

##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 가능성 크다"

### 농진청, "국내 노지 바나나 생육 온도 낮아 자생 어려움"

국내에서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 광주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렸다는 소식이 화제다.

그러나 이는 바나나가 아닌, 이와 유사한 파초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은 파는 같지만 종이 다른 바나나와 파초(芭蕉)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바나나와 파초는 파초과(科) 파

초속(屬)의 다년생 초본으로 분류하는 같은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바나나는 열대성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노지에서 자라기 어렵고, 파초는 온대성으로 내한성이 강해 서유럽, 미국, 캐나다 등 온대지역에서 널리 자라고 있다.

바나나의 경우 4℃~5℃에서 연피해가 발생되나, 파초의 경우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 영하 10℃~12℃까지도 견딘다.

파초는 바나나를 닮은 꽃과 열매가 달리지만 바나나에 비해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 열매가 열렸더라도 5cm~10cm 크기로 작고 씨가 많으며 맛도 짝어서 식용으로는 부적합해 정원 관상용으로 재배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파초에 열매가 맺혀 종자가 발생되기 어렵지만 생육 환경이 적합하며, 수분이 이뤄지는 열대지역에서는 흑색의 단단한 종자가 발생된다.

포(苞)의 색깔도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파초의 포는 황색이지만

바나나의 포는 일반적으로 적자색(赤紫色)이다. 잎 뒷면의 상태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바나나 잎의 뒷면은 분(粉) 모양의 흰 가루가 발생되는 반면, 파초에는 흰 가루가 없고 옅은 녹색이다.

농촌진흥청 성기철 농업연구관은 "식용 바나나는 아직 국내에서는 생육 온도가 낮아 노지에서 자라기는 어렵다"며, "현재 국내 노지에서 바나나처럼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바나나가 아니라 파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 창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신청·접수

전북중소기업청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를 7월 13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고 동시에 '여성창업기업'이거나 '경력단절여성채용 창업기업' 등에 해당하

는 '여성참여활성화과제'도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43)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홍 기자

## 전주상의, 직무능력중심 채용 위한 인사담당자 교육

전주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27일 전주상의 2층 교육장에서 지역기업 인사담당자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인사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를 맡은 (주)오알피연구소의 김용운 인사는 직무내용중심 채용,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정의와 활용, 채용프로세스 운영, 채용설계의 원리, 채용도구별 활용방법을 소개한 후, 기업의 채용 트렌드와 이슈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오알피연구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발한 채용 진단표를 적용해 기업별 능력중심 채용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시연해 능력중심 채용을 원하는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180개 기업에 채용컨설팅과 함께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는 인사담당자 교육, 면접관 이론 및 실습교육, NCS 채용시스템 설계 교육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담당자 교육에 이어 9월 15일에는 면접관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재홍 기자

## 농어촌공 전복, 섬진강댐 용수 공급량 통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분부는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섬진강댐 저수율이 24.9%(저수량 6,400만톤)로, 김제, 정읍, 부안 관내 농업용수(3만 3,177ha) 공급에 차질이 우려돼 28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섬진강댐 농업용수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는 1일 25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했으나, 7월까지 무강우시에도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일 150만톤으로 공급량을 줄일 예정이며 주요 용수간선 공급일수도 하루씩 급수일정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하천 및 배수로에 담겨진 용수를 최대한 활용해 농업용수를 양수하고 있으나 논밭 흘려대기를 통한 최소한의 농업용수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진강댐 하류지역인 부안군 관내 수해면적(1만790ha)에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상류부 정읍시 관내지역에서 수문이나 물꼬를 단속해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재홍 기자

## LX감성음악회, 혁신도시주민과 흥의 한마당 펼쳐

한여름 밤을 수놓을 'LX감성음악회'가 전북혁신도시 지역주민을 찾아간다.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오는 29일 저녁 전주시 완산구 기지토에 위치한 LX본사 운동장에서 '감성음악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흥의 한마당을 펼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 부로 참사 40주년을 맞은 국토정보공사는 국악의 고장인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시립국악단'과 무

대를 압도하는 소리꾼인 '박애리'와 '관현준', 퓨전 국악그룹인 '하나연' 등을 초청해 지역주민과의 색다른 '동행'을 선사한다.

박병식 사장은 "국악과 협합의 조화라는 색다른 경험을 지역주민께 선사하고 싶었다"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밤의 아름다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협동</li> <li>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li> <li>국제대회 디슈 점기 및 우승</li> <li>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li> <li>국가대표 코치 역임</li> <li>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li> <li>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체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메르티 지역 휘득</li> <li>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휘득</li> <li>레프팅 가이드 자격 휘득</li> <li>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휘득</li> <li>인)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li> </ul>
--	---